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개방’ 사실상 합의

트럼프 대통령, 협상 시한 90분 남기고 SNS 긴급 발표 10일 이슬라마바드서 협상 진행...중전 도출할지 주목

미국과 이란이 전쟁 39일째인 7일(현지시간)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 2주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은 대이란 공격을 중단하는 데 양측이 동의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끝나기 불과 90분 전에 휴전이 발표된 것으로, 중대 확전 기로에서 2주 휴전이라는 잠정적 출구가 가까스로 마련됐다.

미국과 이란의 견해차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대적 확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은 셈이다. 이번 휴전 동의를 토대로 양측이 종전까지 이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와 교량 등에 대한 공격을 경고했다가 유예하기를 반복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폭격과 공격의 중단’, ‘휴전’ 등을 언급하며 2주 동안은 에너지 인프라 수준

을 넘어서 전면적 휴전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과의 논의 중 파괴적인 무력 행사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이란과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분명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10개월로 된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것이 협상을 위한 실현 가능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와 과거 논쟁의 대상이었던 다양한 사안의 거의 전부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이르렀으나 휴전기간인 2주 동안 합의가 성사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개월에는 이번 전쟁의 종전 및 향후 불거진 공약, 이란 핵문제 해법,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중동의 국가들을 대표해 오랜 문제가 해결에 가까워져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지난달 26일 백악관 제임스 S.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역시 휴전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 3명을 인용, “이란이 2주 휴전안을 받아들였으며 아이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승인했다”고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대로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고 미 온라인매체 약시오스에 전했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궤멸적 타격 위협으

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란 전쟁 개전(미국 현지시간 2월28일) 38일만에 2주 휴전이라는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중대한 국면 전환이 이뤄졌다.

이날 샤리프 총리가 협상 시한 마감 약 5시간 전 미국의 공격 중단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토대로 한 2주간의 휴전을 제안하면서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샤리프 총리의 제안에 대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고 곧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반응하고 이란 고위 당국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교감 하에 2주 휴전안이 공식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8시까지 설정해뒀던 협상 시한 마감 90분 전에 트루스소셜 게시물로 2주 휴전안 수용을 알렸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10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 중재국을 끼고 협상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직접적이고 집중적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종전으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연합뉴스

아르테미스 2호, 지구 귀환길 탐사선-ISS 간 첫 무선 교신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나간 인류라는 이정표를 세운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본격적인 지구 귀환에 돌입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역사적인 달 근접 비행을 마친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미 동부 시간 기준 7일(현지시간) 오후 1시23분께 달 중력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 우주선에 미치는 지구의 중력이 달의 중력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9시께 추진기를 점화해 예정된 경로에 맞춰 우주선의 귀환 궤도를 정밀하게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3차례로 예정된 궤도 수정 절차 가운데 첫 번째다. 이들은 오는 10일 미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은 이날 국제 우주정거장(ISS)에 있는 승무원들과 장거리 통화도 수행했다. 이는 달 탐사선과 우주정거장 간 최초의 무선 통신 연결이다.

이번 교신을 통해 아르테미스 2호에 탄 크리스티나 코크와 우주정거장의 제시카 메어는 6년여만에 우주에서 통신으로 재회하게 됐다. 무선 통신 당시 아르테미스 2호와 우주정거장은 23만 마일(약 37만 km) 거리에 있었다. NASA는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편에서 촬영한 월평선(月平線) 뒤로 지구가 지는 지구넘이(Earthset) 사진도 이날 공개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